

◆ 교회소식 ◆

1. 8월 한 달 동안에도 지켜주신 감사함으로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2. 9월은 “연합의 달”입니다. 교회과 기관과 같은 뜻과,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3. 9월달부터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같이 참여하여 기도의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9월달 월삭기도회가 6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5. 9월달 예배위원과, 교회 일정을 주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목사님은 월~목까지 휴가입니다.
7. 우리지역 재건축 사업의 성공과,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생일 :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감사 : 필리핀 선교센타 부지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재정부(농협 471-01-119147 드림교회)

선교부(농협 355-0005-8058-53 드림교회)

건축부(농협 355-0005-8059-93 드림교회)

◆ 금주의 기도 제목 ◆

1.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2. 교회부흥과 재건축 성공을 위하여
3. 국가와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4. 객지와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5. 건강과,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6.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위하여

◆ 9월의 교회일정 ◆

월삭기도회 (6일)

연합기도회/청년회주관(18일)

*금요기도회 시작(첫주)

*교단 총회 주간(14-16일)

*노회 고시 교육부(17일)

*추석 연휴(24-26일)

2026표어: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빌 2:2-4)

◎ 8월의 표어 : 십과 휴양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박명호

Rev. PARK MYEONG HO

부목사: 김순길 장로: 최재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13번길 48

042)532-4004. 533-5445

주일오전 영광예배

오전 11:00 인도/박명호 목사
경배찬양 ----- 찬양단과 함께
묵 도 ----- 인 도 자
성시교독 - 교독문 42번(시편 98편)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93장
기 도 ----- 김순길 목사
성경봉독 읍 42:10-17 - 이은주 권사
비전선포 ----- 비전 선언문
말씀선포 ----- 박명호 목사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찬 송 ----- 357장
헌 금 -----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봉헌기도 ----- 박명호 목사
파송의찬양 ----- 411장
축 도 ----- 박명호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새벽 은혜기도회

새벽 5:00 인도/박명호 목사 김순길 목사
말씀강론 1독 성경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주일오후 기관별 소그룹

오후 1:30 인도/기관장
제1부 : 기도회
제2부 : 월례회
제3부 : 찬양발표회 연습
제4부 : 회원친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이루 아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2:2-4)

삼일밤 진리예배

오후 7:00 인도/ 박명호 목사
묵 도 ----- 다같이
찬 송 ----- 458장 ----- 다같이
기 도 ----- 합심기도
성 경 --- 마 17:1-8 --- 인도자
말씀인도 ----- 인도자
가장 좋은 자리에 서다
찬 송 ----- 430장 ----- 다같이
축 도 ----- 박명호 목사

성령충만 금요기도회

금 밤 8:30 인도/ 박명호 목사
말 씀 선 포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아급처럼 기도의 살바를 붙잡으라!

◆ 목양칼럼 ◆ <다시, 무릎의 계절>

이제 이번 주면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다시 무릎 꿇을 계절이 왔습니
다. 이번 달부터 금요기도회의 불을 다시 켜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
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사도는 전신 갑주를 낚날이 열거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하고"(엡 6:18). 갑옷을 다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군사는 서 있기만
할 뿐입니다. 야곱은 압북 나루에서 밤새 씨름하고서야 이스라엘이 되었
습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 새 이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두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골 4:12)라고 증언했습니다. 애쓴다는 말은 땀 흘려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편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상이 아
니라, 몸을 끌고 나와 시간을 떼어 바치는 노동입니다. 겹세마네의 주님
을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세상의 어떤 노동도 이보다 무겁지 않았
습니다.

기도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
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번 죽습니다. 내 뜻이 죽고 내 계획이 죽
고 내 고집이 죽습니다.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드리는 순간 우리 안의 옛 사람이 십
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제단이요, 제물이 되어 올
라가는 자리입니다. 제단에 오른 제물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
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혼자 드리는 기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이 한 주간을 붙들고, 한 가정을 붙
들고, 한 교회를 붙듭니다.

이번 금요일, 기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 9월 예배 및 봉사위원 ◆

	기도위원	성경봉독	오후기도	특별찬양
1주	이은주	양승선	신유진	권사회
2주	김선순	김경아	신민지	자원
3주	양승선	김옥순	기관별 월례기도회	
4주	박종선	양승미	각 가정에서 예배	
안내	이정희, 김지은			헌금